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목감기가 생겼어요.

Q 해외방문 중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접대부 아가씨의 아래쪽을 만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팬티 밖으로 만진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진 손으로 안주를 먹었는데 이 경우 괜찮은지요? 또 접대부가 제 입술에 가볍게 키스를 했는데 이 경우 또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갔다 온 지 4주후 콧물이 2-3일간 나고 목감기가 생겼습니다. 걱정이 돼서 밥맛도 없고 머리도 멍합니다.

HIV 감염을 우려할 사항은 아닌듯합니다.

A 상대여성이 HIV 감염인이 아니라면 어떠한 애무나 성관계를 했더라도 HIV 감염과는 무관합니다. 반대로 그 여성이 HIV에 감염되었고, 여성의 질 분비물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HIV가 체내로 침투할 수 있는 피부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럴 만한 상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부를 만진 손으로 음식물을 집어 먹는 행위나 가벼운 입맞춤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신경쓰인다면 검사를 받아 불안을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의심되는 날부터 12주 이후에 가까운 보건소, 병의원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본 회에서는 상담과 함께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2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1588-5448, 배주화 · 금요일).

몽골여행 중 직업여성의 질 분비물을 먹었어요.

Q 지난 7월 16일 몽골여행 중 직업여성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였으나 문제는 그녀의 성기를 애무하다 질 분비물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귀국해 보니 제 가슴부분에 좁쌀만한 반점이 몇 개 생겨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술을 마셨을 뿐 건강한 편인데 그렇게 빨리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감염가능성은 희박합니다.

A 상대여성이 HIV 감염인이라면 구강성교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구강은 점막으로 되어 있어서 에이즈바이러스(HIV)가 포함된 체액(혈액, 정액, 질 분비액, 모유)에 노출되면 감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강성교로 인한 HIV 감염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입 안으로 들어오는 질 분비물의 양이 매우 적고 침에 의하여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하신 반점도 에이즈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안하거나 증상이 악화된다면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말기에는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까요?

Q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10년 이상일 수도 있죠.

면역력이 약화되어 폐렴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A 감염된 후 8-10년 뒤에 HIV 검사를 받았다면 그 결과는 정확합니다. 또한, 검사결과 본인이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에이즈 말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HIV에 감염되면 일정한 단계를 거칩니다.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을 경우 보통 10년 정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기를 가집니다.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에이즈 단계인 감염말기에 접어들게 되어, 인체의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폐렴, 결핵, 치매, 대상포진과 카포시육종, 악성림프종 등의 악성 종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기가 되면 이렇게 다양한 기회질환이 동반된 상태이므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기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 하더라도 전문의에 의한 치료를 통하여 기회감염을 막고 면역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희망을 버릴 필요 또한 없습니다.

아내가 HIV음성이면 저도 감염되지 않은 건가요?

Q 저는 결혼한 지 2년 됐으며, 2년 동안 아내는 2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검진결과 negative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에이즈에 감염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구요.

제가 결혼 전 다른 여성과 관계한 이후로 에이즈 증상이 있어서 혼자 생각만으로 감염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건강검진 결과로 본다면 저도 감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2년간 관계를 했으니 제가 감염인이면 당연히 아내도 감염됐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내가 HIV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남편도 음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A HIV 감염은 감염인과 콘돔 없이 단 한 번의 성관계시에 0.1-1%의 감염 확률이 있습니다. 낮은 가능성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감염될 수도 있고, 수백 번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염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감염여부로 남편의 HIV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질문에서처럼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등으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HIV 검사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호 원고 중 PCR 검사시기와 관련한 답변내용(45쪽)을 정정합니다.
PCR 검사 시기에 대한 답변 중 "4주 이내 검사받으면 됩니다"는 "10일 혹은 12일 이후에 검사받으면 됩니다"로 정정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게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